금주의 법구-〈대장엄론경〉
오로지 말을 조심하라.
함부로 남을 모략하지 말며
남의 잘못을 전하지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99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7월 20일) 2022년 8월 17일 수요일

조계종 37대 총무원장 후보 진우 스님 '단독 출마' 확정

8월 9일 후보등록…11일 마감까지 유일 후보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후보에 前 교육원장 진우 스님〈사진〉이 단독 출마했다.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선거 절차 없이 당선토록 규정한 현행 선거법에 따라, 진우 스님은 후보자 자격심사 이후 제37대 총무원장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될 예정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서 단일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은 처음인데다, 선거인단 다수를 차지하는 종회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합의추대로 주목된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제37대 총무원장 선거절차에 따라 후보등록 접수를 진행했다. 前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첫날인 8월 9일 오전 10시 처음으로 접수해 기호 1번이 책정됐으며, 마지막 날인 11일 오후 5시까지 추가접수 없이 마감돼 단독 출마자로 확정됐다.

특히 제37대 총무원장 선거는 기존 단일후보라도 선거절차를 거쳐야 했던 이전과 달리 2019년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단일후보 시 무투표당선이 가능해 졌다는 점에서, 불교계 안팎으로 진우 스님의 무투표당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개정된 선거법상 무투표당선
자격심사후에는 사실상 확정
원로회의 인준절차를 거친뒤
임기는 9월 28일부터 시작돼

7월 30일 종단 원로 · 중진 스님들이 만나 "종단 안정과 화합을 위해 제37대 총무원장에 대한 합의추대가 가능하길 바란다"고 공의를 모은 데 이어, 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8월 3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선거로 인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우려해 '검증된 단일후보에 대한 합의추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진우 스님이 기호 1번으로 후보등록을 한 직후, 선거인단 다수를 차지하는 중앙종회의 5개 종책모임이 공동지지 선언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중앙종회 81명 의원 전원이 종책모임에 가입해 있다는 점에서, 진우 스님은 사실상 중앙종회의 지지를 받는 유력후보로 압도적인 당선 가능성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진우 스님은 8월 10일 출마인사말을 발표하고 "소통과 포교, 교구를 종단 운영 3대 기조로 삼겠다"며 차기 총무원장 후보로서 포부와 의지를 밝혔다.

스님은 "한국불교의 당간지주를 세워온 수 많은 스님들이 시대마다 이끈 소명의식과 수범한 공덕의 토대 위에서 한국불교 중흥의 새 역사를 쓰겠다는 신념으로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의 원력을 세우고자 한다"며 "종단 운영의 막중한 책무가 맡겨진다면 첫째로 소통, 둘째 포교, 셋째로 교구를 종단 운영의 3대 기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첫 번째 공약으로 사부대중의 지혜를 모아 진심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와 소통하고 미래와 소통하는 가운데 현재의 소통으로 불교중흥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다.

또 스님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포교라는 사명으로 도심 포교와 청년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에 맞는 방안의 지혜를 바르게 모아가야 하겠다"며 "교구발전이 불교중흥이며, 불교중흥이 교구발전이라는 생각으로 교구본사 중심의 효율적인 종무행정을 제안하고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차기 총무원장으로서 불교발전을 이끌겠다는 자신감도 함께 드러냈다. 스님은 "수승한 가르침과 원로대덕의 덕화를 바탕으로 사부대중의 지혜와 공감이 세상과 함께하는 원력으로 나아가고, 중흥의 길을 환하게 열어갈 수 있도록 정진에 정진을 거듭하겠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 묻고 답을 찾고자 한다. 후대에 보여 줄 불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지난 공덕 위에서 해답을 보겠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이 유일한 총무원장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8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무투표당선이 확실시된다. 진우 스님은 이미 교육원장 외에도 총무원 집행부 소임과 총무원장 권한대행 등 자격이 검증된 인사라는 점에서 큰 변수가 없는 한 자격심사도 큰 무리없이 통과할 것이란 시각이 많다. 이 경우 절차에 따라 원로회의 인준을 거치면 9월 28일부터 제37대 총무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하게 될 전망이다.

진우 스님은 백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1978년 보현사에서 관응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8년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담양 용흥사와 제18 교구본사 백양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재심호계위원과 총무원 총무부장, 기획실장, 호법부장, 사서실장 소임과 총무원장 권한대행, 불교신문사 사장과 교육원장을 역임했다.

〈관련기사 2면〉



신도시 포교 거점 세종 광제사 문 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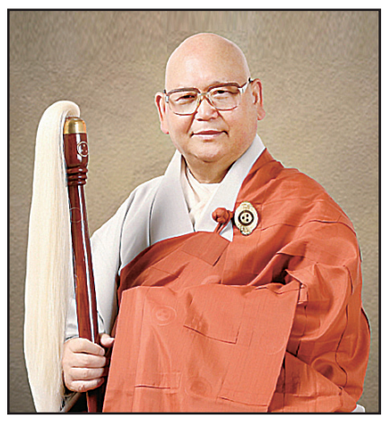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 제36대 집행부의 핵심사업인 백만원력결집불사 10대 사업 중 하나로 신도시 포교와 함께 한국불교 문화를 내외국인에게 전수할 세종 광제사가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결실을 맺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8월 9일 광제사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낙성법회 및 전통문화체험관 개관식을 봉행했다.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 신도시 포교 거점사찰 창건을 축하했다.

세종=임은호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관련기사 3면〉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월탄 대종사 원적

8월 8일 단양 미륵대흥사서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엄수

조계종 원로의원 미룡당 월탄 대종사〈사진〉가 8월 4일 오전 10시 30분 주석처인 단양 미륵대흥사에서 법납 68년 세수 86세로 원적했다. 월탄 대종사의 영결식은 8월 8일 미륵대흥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엄수됐다.



월탄 스님은 평생 수행자의 길에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실천하며 종단과 한국불교 중흥,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펴는 전법의 등불을 밝히며 정진했던 스승이었다. 1957년 4월 당대의 선지식인 금오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제방선원에서 화두참구에 매진했으며, 종단과 교구본사 소임을 맡은 후에도 화두를 놓지 않고 정진했다. 특히 '대법원 6비구 할복사건'의 당사자로, 위법망구 정신으로 불교정화를 이끌었다.

한평생 시대적 소임을 외면하지 않고 출가수행자로 한길을 걸었던 월탄 스님은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 30분 미륵대흥사 정화당에서 입멸에 들었다.

〈관련기사 2면〉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국 96개 선원 하안거 해제

성파 종정예하 "지속 정진" 당부

임인년 하안거 기간 중 선방에서 용맹정진한 수좌들이 8월 12일 하안거 해제를 맞아 일제히 산문을 나섰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하안거 해제법어를 내리고 부단한 정진과 회향을 당부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8월 12일 임인년 하안거 해제를 맞아 선원대중들을 위해 법어를 내리고 "간절하게 준비하고 점검해서 걸음걸음은 바른 법이 활용되도록 하고, 하는 말마다 무진법문이 되게 해야만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 시주의 정성에 보답하는 수행자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성파 대종사는 "오직 화두참구의 일념으로 정진하는 선방에 폭염은 오히려 서늘했고, 구룡지 백일홍은 더욱 붉게 피었으며 무풍한송은 그 향기 더욱 그윽하게 되었도다"라며 "안거가 여법하게 시행되고 화두참구의 수행가풍으로 정진하는 종단의 수행전통은 참으로 수승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일"이라고 찬탄했다.

한편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의 '임인년 하안거 선사방함록'에 따르면 이번 안거기간 전국 96개 선원(총림 7곳, 비구선원 58곳, 비구니선원 31곳)에서 1949명(총림 222명, 비구 1099명, 비구니 628명)의 대중이 용맹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정 · 총림 방장 법어 6면〉

송지희 기자



깨달음의 열쇠! 선종 최고의 공안집

전등록 30권



전등록은 7불로부터 1조 가섭존자, 28조 달마대사, 33조 혜능대사 등 52세대 1,701인의 계보와 조사들의 깨달음의 골수를 말 밖의 말로 기록한 선종 최고의 공안집이다. 그러기에 지식이나 알음알이로는 선사들의 요지를 깨달아 들어갈 수 없으므로, 농선 대원선사가 선문염송30권, 화엄경81권을 완역한 혜안으로 각 조사마다 선리(禪理)의 토끼뿔을 더해 닦아 증득할 수 있도록 깨달음의 문을 열어 보였다.

역저 농선 대원선사

수덕사 만공선사의 법맥과 대각사 용성선사의 강맥을
한 몸에 받은 이 시대 유일한 선교 양종의 대종장으로

화엄경81권 완간

7불로부터 역대 조사들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 깨달음의 진수

이 시대에 다시 만날 수 없는 전등록 30권 완역본 / 500부 한정판매 / 도서출판 문젠 T: 010-8670-1445